

소값 상승요인과 전망



이 종 순
농민신문사 경제부 차장대우

「현재의 소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산지소값의 상승세가 울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3월 29일 현재 2백46만5천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기간중 산지수송아지값의 상승
폭은 큰소값을 앞지르면서 지난 2월 한달평균 기준 큰
소값의 76%를 웃돌고 있는데 큰소와 송아지값의 차
가 크게 좁혀졌다.

소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이처럼 소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한
우사육농가들은 일단 높은 소값에 안심하면서도 앞으
로의 소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 상반기 중에는 특별한 가격변동 없
이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이
고 있으나 현재 높은값에 입식된 송아지가 본격 출하
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의 가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
게 접근하면서도 어두운 가격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 소값이 현재수준보다 하락한

다면 현재 높은 값에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들이 자칫
사료비와 인건비등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값
파동이 올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큰소와 송아지값 동향

지난 93년 3월 1백88만2천원까지 떨어졌던 산지큰
소값(4백kg 큰소 기준)은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
해 93년은 평균 2백 15만 4천원, 94년은 2백33만4천
원등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월은 2백43만원, 2월 2
백44만7천원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승세는 수입쇠고
기 확대방출과 포장육값을 인하한 3월 들어서도 계속
돼 3월 13일은 2백46만원, 29일 2백46만5천원을 보였
으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2백50만원을 넘어선지도 오
래됐다. 축협서울공판장에서의 한우지육경락값(지육
1kg당 기준) 평균도 지난 94년에는 9천6백48원을 나
타냈으나 올 1월은 1만5백54원, 2월 1만2백11원, 3월
15일 1만4백9원, 25일은 1만7백39원등 지속적인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육밑소인 수송아지값은 지난 93년에는 1백

37만원5천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1백59만2천원으로 오르는데 이어 올 1월은 1백80만9천원, 2월 1백85만7천을 기록했고 3월29일 현재는 1백92만9천원을 나타내 이기중 40%(55만4천원)가 오르면서 큰소값상승을 앞지르고 있다. 이같은 수송아지값의 급등세에 따라 2월 한달평균 수송아지값(1백85만7천원)이 큰소값(2백44만7천원)의 76%를 차지, 지난 85년 소값 파동이 있기전인 83년의 60%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여 불안한 가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소값 상승요인

이처럼 큰소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우전문판매점이 확대설치되는 등 정부의 한우차별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한우고기소비가 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한해동안 한우고기를 포함한 국내산쇠고기 소비량은 14만7천t으로 93년의 12만9천6백여t보다 13%가량 늘었다.

또한 지난 92년 7월부터 실시된 축산물등급제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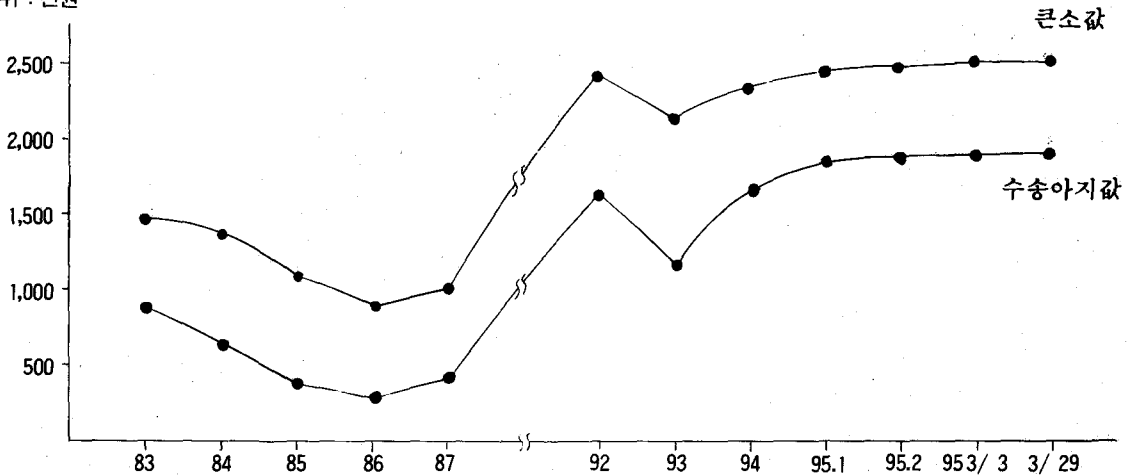
차 정착되기면서 육질등급별 경락값 차가 커지고 우수축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한우사육농가들의 고급육생산의욕이 높아져 한우의 육질상위등급 출현율이 향상됐기 때문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협 축산물 등급판정소가 집계한 A-1등급과 B-1등급등 우수등급출현율은 지난 93년에는 전체등급 판정마리수의 4% 수준에 불과했으나 94년은 6.2%로 높아졌다.

이와함께 송아지값의 경우 지난해 암소비육이 성행하면서 암소도축비율이 46.9%로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번식율이 낮아져 송아지 생산마리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축사시설자금등을 지원 받은 농가들이 송아지입식에 본격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마땅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낙농등 다른 축종에 비해 비교적 사양관리가 쉬운 한우사육을 선호하는데다 그동안 소규모 사육추세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업규모의 사육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소값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비육이 성행하면서 송아지입식열기가 높아진 것도 송아지값 상승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산지큰소 및 수송아지값 동향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1 | 95. 2 | 3/ 13 | 3/ 29 |
|---------------|-------|-------|-------|-----|-------|-------|-------|-------|-------|-------|-------|-------|-------|-------|-------|-------|
| 큰소값 (4백kg) | 1,520 | 1,431 | 1,105 | 995 | 1,014 | 1,404 | 1,734 | 1,924 | 2,192 | 2,403 | 2,154 | 2,334 | 2,430 | 2,447 | 2,460 | 2,465 |
| 수송아지값 | 909 | 651 | 444 | 376 | 464 | 652 | 1,022 | 1,217 | 1,540 | 1,677 | 1,375 | 1,592 | 1,809 | 1,857 | 1,869 | 1,929 |

향후 소값 전망

대부분의 관계전문가들은 큰소값이 올 상반기중에는 한우 고급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경기활성화등의 영향으로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초 높은 값에 입식된 수송아지가 비육후 본격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이후 큰소값 전망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변동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확실한 전망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경우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이후의 소값이 현재보다 하락 할 것으로 내다 보는데는 어느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이유로 올해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쇠고기 시장 접근물량방식으로 수입이 시작되는데다 97년 7월부터는 이들 품목이 수입개방되면서 대체소비관계에 있는 쇠고기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동시매입찰제(SBS)에 의한 쇠고기수입량이 확대되면서 한우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고급육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현재 높은 소값 영향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두(多頭)사육체제가 확산되면서 한우사육마리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우고기소비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성장률도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92년 2백만마리를 넘어선 한우우사육마리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94년 3월 2백23만6천마리, 12월의 2백40만마리를 기록한데 이어 올 9월은 2백51만마리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련단체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한달평균 1백86만원대로 큰소값의 76%를 차지한 상태에서 수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들이 비육해 출하하는 내년이후의 큰소값이 현재보다 상당수준 하락할 경우 사료비와 인건비등 생산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소값파동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책

정부는 소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값안정을 위해 지난 3월 8일 한우비육사업자금지원 유효와 수입쇠고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중에는 특별한 가격변동 없이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높은 값에 입식된 송아지가 본격 출하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의 가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어두운 가격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이후에 소값이 현재수준보다 하락한다면 현재 높은 값에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들이 자칫 사료비와 인건비등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값파동이 올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확대방출조치를 취한데 이어 15일에는 수입쇠고기포장육판매값을 10%인하했다. 이와함께 소값파동에 대비, 높은 값에 송아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소값파동 가능성에 대해 특히 농가들은 자기자본 이외에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을 자제하는 동시에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송아지입식에 전액 투자하지 말고 어려울 때를 감안해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생산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소값파동시 농가별 영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산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소값파동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처럼 송아지값이 높게 거래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소값파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번식과 비육을 겸한 일관사육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최규섭교수는 『송아지값이 높고 큰소값과의 차이가 작은점, 암송아지와 수송아지값 차이가 줄었고 정부자금지원등의 면에서 85년 소값파동이 발생하기 전인 83년 말 상황과 비슷한 요소들이 많아 소비면에서 지속적인 뒷받침이 안될 경

연도별 한육우 사육마리수

(단위 : 천마리)

| 구분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9 |
|-----|-------|-------|-------|-------|-------|-------|-------|-------|-------|-------|-------|-------|-------|
| 마리수 | 1,940 | 2,318 | 2,553 | 2,370 | 1,923 | 1,559 | 1,536 | 1,622 | 1,773 | 2,019 | 2,260 | 2,393 | 2,510 |

* 자료 : 농림수산부 가축통계 * 95년 9월은 축산관측협의회회 전망치임

우 소값하락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농가들은 적정인윤이 보장되는 수준을 감안해 비싼 값의 송아지입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 고정철박사는 『소값 하락시에도 고급육인 1등급 한우값은 3등급등에 비해 영향이 적었다』며 『따라서 고급육 생산에 더욱 노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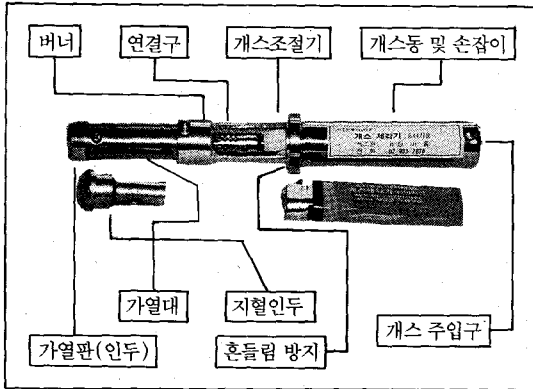
는 것도 소값하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축산경영연구팀도 최근한 연구자료를 통해 비육밀소 구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성도 향상시킬수 있는 사육체제로 번식과 비육을 겸하는 것이 불황에 대비하는 적절한 사육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상품

가스 제각기 (송아지용)

특허출원 제 21489호



■ 기구특성

1. 사용년한이 반영구적이다. (라이타 가스 재충전함)
2. 작업방법이 용이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3. 송아지 뿔이 1cm 정도 자랄때 까지 사용한다. (적기 1개월령)
4. 뿔나는 부위(생장점)만 지지하므로 출혈도 없고 구멍도 뚫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5. 가열후 2~3분후에 작업할 수 있다. (600℃)

6.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7. 큰뿔 자른후 지혈인두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지혈인두포함가격 6만원)

■ 사용방법

가스 주입구에 라이타 가스를 주입(1회 주입으로 5두 이상 제각)한 후 가스조절기를 열어 가열대에 불을 붙임. 약 2분후 인두가 600℃ 정도가 된 후 사용함. 지혈인두 사용시는 제각인두를 빼고 그 자리에 조립하여 사용함.

■ 신청방법

온라인 은행구좌에 입금후 물품발송 (입금후 전화요망)

온라인 구좌 : 우체국 : 011809-0195128-12

축협 : 044-13-127995

예금인 : 이 양 선

■ 연락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숭인 2동 685 (2층)

전화 : (02) 923-7878 (오후 1시~9시)

922-8013(오전)

공급사 : 한아름사